

KIA, 믿음의 야구 '팀워크'로 뜨거운 9월



KIA 타이거즈가 팀워크로 뜨거운 가을을 만들고 있다.

지난 9일 LG와의 더블헤더 2차전이 끝난 뒤 투수 임기영의 입에서는 "힘들다"라는 말이 나왔다. 올 시즌 KIA 불펜의 마당쇠 역할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왔던 임기영에게도 더블헤더 일정은 만만치 않았다.

이날 임기영은 1·2차전 경기에 모두 나와 2.1이닝을 소화했다. 3일 SSG전 이후 6일 만의 등판이기는 했지만 하루 두 경기는 임기영에도 힘든 스케줄이었다.

KIA는 두 경기에서 허리 싸움을 해준 임기영 덕분에 1위 팀 LG와의 더블헤더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고, 기세를 이어 10일 경기까지 3연승을 달렸다.

극적인 더블헤더 승리에는 '팀워크'도 있었다. "힘들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던 임기영은 이내 "평상시 보다 힘들긴 했는데 저녁 게임에서는 몸이 풀리니까 괜찮았다. 야수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다. 여자피나는 던져 봐야 1, 2이닝 하는 것인데 야수들은 경기를 따 봐야 한다"고 혼신을 다해 1·2

투수는 야수를... 야수는 투수를

서로 격려하며 힘든 스케줄 소화

임기영 "타자들 덕분에 좋은 결과"

차전을 소화한 야수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임기영은 또 1차전에서 선발로 나와 4.1이닝을 책임져 준 황동하의 이름도 언급했다.

임기영은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동하가 너무 잘 던져줬다"며 팀워크로 똘똘 KIA가 만든 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했다.

이날 KIA는 LG 임찬규를 상대한 '대체선발' 황동하의 역투 속에 승부를 뒤집으면서 1차전을 7-6 승리로 장식했다. 이외리가 손가락 물집으로 5회를 마무리하지 못했던 2차전에서도 최형우의 대타 역전 만루홈런으로 12-7 역전승을 펼쳤다.

투수는 야수를, 야수는 투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9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KIA의 2023시즌 결승선이 기대된다.

임기영은 "타순이 워낙 좋기 때문에 투수들 사이에 마운드 올라가면 최소 실점하지는 그런 분위

가 있다. 타자들이 언제 던지지 모르니까 줄 것은 주고 막을 것 막으면서 투수들이 역할을 해준다면 계속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다"며 "점수를 주더라도 타자들이 뽑아준다. 투수들은 우리가 다음에는 적게 주자는 생각으로 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나 좋게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산체스의 부상으로 인한 선발진 위기에도 최선을 다해 기싸움을 해주는 불펜진과 기다리면 터지는 방향이. KIA는 투-타의 밸런스 속에 9연승 질주까지 했고, 연패 뒤 다시 연승을 만들면서 9월 가장 뜨거운 팀이 됐다.

팀워크까지 더해지면서 위기를 넘고 승수를 쌓아 가고 있는 KIA에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좌완 김기훈이 퓨처스리그에서 재정비를 끝내고 이번 주 선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부상으로 이탈한 외국인 투수 산체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팔꿈치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산체스는 12일 30개의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70-80% 전력으로 시범 가동을 한 산체스는 14일 다시 불펜피칭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17일에는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기영

야구 '프리미어12' 2024년 11월 개막

결승전 일본 도쿄돔에서 열려

야구 세계 랭킹 상위 12개국 이 다투는 '프리미어12'가 2024년 11월 열린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2024년 가장 중요한 국제야구대회인 제3차 WBSC 프리미어12가 내년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미어는 WBSC 기준 세계 랭킹 상위 12개국 이 우승을 다투는 대회로 지난 2019년 대회 이후 5년 만이다.

2015년 처음 열린 프리미어12는 4년 주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2019년 2회 대회가 열렸다. 일정대로라면 올해 3회 대회가 열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내년으로 밀렸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국제대회가 연기되면서 지난 3월에 월드베이스클래식(WBC)이 열렸고, 9월 23일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한다.

대신 WBSC는 오는 11월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가 출전하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을 열고, 국제 대회 공백을 채운다.

내년에 열리는 프리미어12에서는 12개 참가국이 A·B 두 그룹으로 나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대결을 한다.

A조(미주 대륙-장소미정)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결하고, B조는 대만에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풀리그를 소화한다. 개막전은 11월 13일 일본 나고야에서 진행된다.

조 1·2위 팀에 슈퍼라운드 출전권이 주어진다. 슈퍼라운드에서 1·2위를 차지한 팀이 결승전에서 우승을 다투고, 3·4위 팀은 동메달 결정전을 벌인다.

슈퍼라운드 경기는 일본 도쿄돔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결승전과 동메달 결정전도 도쿄돔에서 11월 24일 열린다.

한편 '초대 챔피언'인 한국은 내년 대회에서 9년 만의 우승을 노린다.

한국은 2015년 열린 1회 대회 준결승에서 일본 선발 오타니 쇼헤이에 막혀 고전하다, 0-3으로 뒤진 9회 4-3의 역전극을 펼치며 결승행을 확정했다. 이어 결승에서 야구 중추국인 미국까지 8-0으로 제압하면서 대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은 2019년 2회 대회에서도 결승에 진출했지만 일본에 3-5 역전패를 기록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마일 점퍼' 이상혁 다이아몬드리그파이널 출전 17일 오전 3시 점프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우승인시청)이 한국 육상 최초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에 도전한다.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은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한국시간으로 17~18일에 열린다.

이상혁이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17일 오전 3시 8분에 시작한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다이아몬드리그는 1년에 총 14개 대회를 치른다.

13개 대회에서 쌓은 랭킹 포인트로 순위를 정해 '챔피언십' 격인 14번째 파이널 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각 대회 1~8위는 순위에 따라 차례로 승점 8~1점을 받는데, 남자 높이뛰기는 총점 상위 6명이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출전 자격을 얻는다.

남자 높이뛰기를 평정한 2023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대회는 도하, 로마-피렌체, 스톡홀름, 실레지아, 런던, 취리히 등 총 6개다.

이상혁은 4개 대회에 출전했다. 도하(2m27)와 로마-피렌체(2m30)에서 2위에 올라 7점씩을 얻었고, 스톡홀름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못해 다이아몬드리그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마지막 개별 대회인 취리히 대회에서 3위에 올라 6점을 추가한 이상혁은 총 20점, 4위로 파이널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육상 선수들이 올림픽, 세계선수권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건, 올해 이상혁이 최초다.

지난해 이상혁은 1점이 부족해 7위로 파이널에 출전하지 못했다.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는 현역 최정상급 점퍼가 모두 출전한다. 파이널 챔피언에 오르면 다이아몬드리그 모양의 트로피와 상금 3만달러(약 4천만원)를 받는다.

'현역 최고'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은 총점 29점, 1위로 파이널에 진출했다. 바르심은 2014, 2015, 2017년에 이어 개인 통산 4번째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을 노린다.

지난 8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장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탬베리는 2021, 2022년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챔피언이기도 하다.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2위이자,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주본 해리스(미국)은 안방에서 '파이널 챔피언'에 도전한다.

해미시 커(뉴질랜드)와 토마스 카르모이(벨기에)도 파이널에 출전한다.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상혁도 우승을 꿈꾼다.

이번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이 열리는 헤이워드 필드는 이상혁에게 좋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이상혁은 충남고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헤이워드 필드에서 벌인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20세 미만)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2m24의 당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파이팅"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자 항저우로!' ...아시안게임 선수단 금 50개 3위 목표

1천명 참석 결단식 선전 다짐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11일 앞두고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했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제19회 항저우 하계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은 대한민국 선수단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승민 위원 등 의빈과 17개 시도체육회 관계자, 각 종목 선수단 등 1천명이 참석해 곧장 도오를 태극전사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내년 파리 올림픽 기간 열리는 IOC 선수 위원 투표에 한국 후보로 출마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 여자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영상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했을 텐데 열심히 뛰어서 응원할 테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최은 선수단장이 대한민국 선수단기를 힘차게

휘두르고, 선수 대표 안세영(배드민턴)과 김우민(수영)이 선수단에 증정된 선물을 받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중국 저장성 성도 항저우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오는 23일 막을 올려 10월 8일 폐막한다.

한국 선수단은 39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최대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걸었다.

결단식을 마친 선수들은 종목 일정에 따라 순차로 중국으로 출국하며, 선수단 본진은 20일 항저우행 비행기에 오른다. /연합뉴스